

‘한국의 전통, 프랑스 교실로’ 한국 전통예술 확산 위해 한글학교 교사 대상 특강 열어

- 주프랑스한국문화원, ‘투어링 케이-아츠’일환 국립남도국악원과 협력해
프랑스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전통무용·사물놀이 전수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은 국립남도국악원과 공동으로 프랑스 내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통예술 특별강좌 「한국을 가슴에 품다」를 오는 2월 27일(금)부터 28일(토)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프랑스 현지에서 처음 열리는 국립남도국악원의 전문 연수

국립남도국악원은 2006년부터 재외동포 및 국악 단체를 대상으로 초청 연수 사업을 이어왔으나, 프랑스 현지에서 직접 연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특강은 프랑스 내 한글학교 협의회 소속 교사들이 한국 전통예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를 향후 한글학교 수업 현장과 지역 문화 교육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동 행사는 단순히 일회성 교육을 넘어, 프랑스 각 지역의 한글학교가 한국 전통예술을 전파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거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강은 한국무용과 사물놀이를 중심으로 총 8회에 걸친 집중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국립남도국악원 소속 한상욱(기악단 지도단원), 장보름이(무용단 수속단원)과 같은 전문 예술인들이 강사로 나서 교육의 질을 높였다.

한글학교 교사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전통예술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수법을 함께 익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지원하는 ‘투어링 케이-아츠(Touring K-Arts)’ 순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문화원은 이번 특강을 시작으로 향후 프랑스 현지에서 전통문화 공연과 연계한 다양한 한국 전통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한국 문화의 매력을 프랑스 전역에 알릴 계획이다.

* 투어링 케이-아츠(Touring K-Arts): 국내 우수한 문화예술단체가 해외 공연, 전시, 강좌 개최를 희망하는 경우, 재외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여러 나라(도시)를 순회할 수 있도록 연결·지원하는 사업

*** 강사진 프로필**

한상욱 : 국립남도국악원 기악단 지도단원. 세한대학교 전통연희학과 학사 및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으며, 사물놀이겨루기 대통령상 수상, 전라남도 무형유산 양태옥류 진도북놀이 이수자,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이수자로 전통 연희 전반에 걸친 폭넓은 교육 경험을 갖추고 있다.
장보름이 :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수석단원. 조선대학교 교육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전라남도 무형유산 진도북놀이 이수자, 경기도 무형유산 경기도당굿 시나위춤 이수자로서 목포 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담당 부서	주프랑스한국문화원	담당자	교육, 스포츠	우지영 (+33 01 4720 8415)
		담당자	언론홍보	이성은 (+33 01 4720 8415)

